

正論直筆 57년·특종보도 57년

“광주·전남 현대사 광주일보가 바꿨다”

광주일보의 정론·직필을 바탕으로 한 특종 역사는 전쟁과 혁명, 독재와 유신,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이어진, 감각과 환희가 어울린 광주·전남 현대사의 축소관이나 다툼 없다. 지난 57년간의 특종 보도를 더듬어봤다.

▲ 6·25 전쟁 중에 뿌리내린 정론·직필=광주일보의 뿌리인 전남일보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 10일 창간됐으며, 전남매일신문은 4·19 직후인 1960년 9월 26일 태어났다.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은 1980년 11월 29일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에 의해 문을 닫고, 이를 뛰어 12월 1일 광주일보라는 제호의 신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광주일보의 창사기념일은 전신인 전남일보의 법인설립등기일인 4월 20일로 정해졌다.

▲ 지방 신문 중 유일하게 이승만 독재 비판=1952년 2월 10일 창간

1952년 창간호 이승만 독재 비판

5·18 첫 진상 보도로 한국기자상

다문화 가정 등 어두운 곳 등불로

한 전남일보는 창간호 1면 텁으로 휴전회담 기사를 배치하면서 지방신문으로는 유일하게 이승만 독재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 유신시대에도 언론자유 실천=1960년 4월 19일에는 광주지역 고교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온 4·19 의거가 발생했고, 이를 상세히 보도했다. 특히 이후 4·19 당시 광주 시위의 밭포 책임자 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4·19 광주희생자 조의금 및 위문금품 모금’을 주도하는 등 지역 대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언론 암흑기인 유신시대에도 정론·직필은 계속됐다. 74년 10월 25일 취재진 긴급조치 1호의 혼란속에서도 당시 전남일보 기자들은 언론자유실천을 결의하고, 사설보도에 힘을 쏟았다.

▲ 1980년 광주의 5월 신문발행 중단=1980년 5월, 광주는 5·18이



1980년 6월 4일 '민주시민의 긍지...무등산은 알고 있다'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광주 시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대변했다.

란 참극을 겪었다. 광주항쟁이 격화되면서 시민들이 죽어갔지만, 광주에서 발행되는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은 광주의 참극을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다.

▲ 지방 신문 중 유일하게 이승만 독재 비판=1952년 2월 10일 창간



2005년 10월 순천현대하이스코에서 발생한 시위노조원과 경찰의 충돌로 경찰버스 3대가 불에 타고 있다.



2007년 기획보도 '온누리안 리포트'를 통해 제 10회 한국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베트남 현지에서 취재한 국제결혼 현장.

했다.

또 같은 해 전남도지사 등 단체장들이 자녀를 특채하고, 관용여권을 불법 사용한 사실을 고발해 고위공직자회에 경종을 울렸다.

2005년 10월 순천현대하이스코에선 경찰버스 3대가 불에 타고 시위노조원과 경찰 100여명이 충돌로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에서 10여년만에 발생한 유혈충돌의 현장에는 유일하게 광주일보의 카메라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2000년대 들어 국제결혼이 급증하

면서 각종 문제점이 속출했다. 이에

광주일보는 2007년 1년 동안 전국언론 중 최초로 '온누리안 리포트'(국제결혼 다문화 가정)란 시리즈를 통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고, 그 공로로 제 10회 한국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아픔을 다룬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이란 기획보도로, 외국인 노동자의 송출과정의 문제점과 인권유린 실태 등을 고발해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산불·교통사고·선박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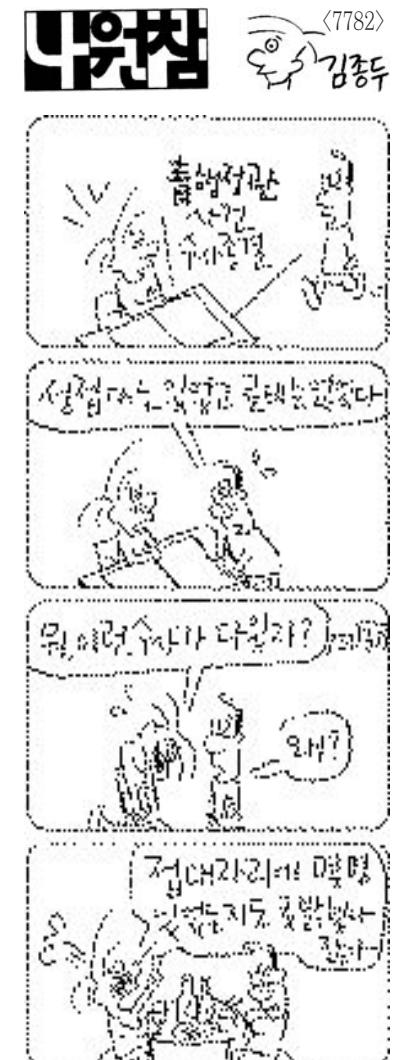
주말·휴일 광주·전남 사고 잇따라

또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께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58)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주말과 휴일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18일 새벽 5시50분께 신안군 매들도 남서쪽 8.5km 해상에서는 목포선적 10t급 낚시 어선 신안증 2호와 카보디아 서적 1천500t급 알렉산드라 호가 충돌, 낚시 어선에 태고 있던 안모(44·경기도 수원시)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고 해경 구조대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침수나 기름유출 사고는 없었다.

19일 오후 5시 현재 건조주의 보가 발효된 지역은 광주를 비롯한 나주, 광성, 구례, 보성 등 10개 시·군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금은방 강도 수사 '갈팡질팡'

사건 발생 6일째... 지휘체계 혼선·실마리 못찾아

광주 금은방 3인조 강도사건 수사가 사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단서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은 19일 "금은방 내 CCTV 화면에 찍힌 용의자 3명 중 1명의 인상작의를 토대로 수배전단을 작성, 전국에 수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은방에서 채취한 지문 30점과 흥기·구두·용의자랑, 용의자 도주로 등에 대한 정밀감식 결과, 범죄와 관련된 추가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 금은방 절도범 등 용의자와 연령대가 비슷한 동종전과자를 각각 선별,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특히 범행 전 범인들이 과속 등 단

속 카메라에 단속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사건 현장 부근의 통신 기지국 통화 내용 수사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날 5개 경찰서 형사과장을 소집, 회의를 열어 공조수사를 펴기로 했다.

그러나 코앞에서 범인을 놓치고도 사건 발생 5일이 넘도록 지휘체계 혼선으로 갈팡질팡하다 뒤늦게 공조수사에 나서 '늑장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용의자 수배 전단을 게시하는 한편 언론과 협조, 용의자 수배에 나섰다.

/김형호기자 khh@

슈퍼 여주인 살해 용의자 검거

나주경찰은 19일 슈퍼마켓 여주인을 살해한 염모(50)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17일 자정경에 나주시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홀로 사는 주인 최모(여·60)씨를 둔 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경찰에서 "가게에 들어갔는데, 최씨가 놀래면서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투신하니 수심 50cm '발복만 빼었네'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자살을 기도한 40대 여성이 얕은 수심 때문에 목숨을 건져 앉았는데,

○...19일 광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35분께 서구 풍암저수지 위 다리에서 허모(여·41)씨가 물로 떨어지는 것을 이 앞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 119에 신고.

○...허씨는 4m 높이의 난간에서 저수지로 뛰어 내렸으나 다행히 수심이 50cm 밖에 되지 않아 발복만 빼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는 것.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허씨는 자살하려고 한 것 같다"며 "최근 날이 가물어 수심이 얕았던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라고 설명.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법원 "지만원의 문근영 비방은 색깔론"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지난해 기부선행으로 주목을 받은 텁스타 문근영씨에 대해 '빨치산'을 들먹이며 한 번

목적이 있었다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이 인정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씨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다"며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

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글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빨치산 선전 등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이 인정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씨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다"며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

았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